

대한민국 녹색산업 해외진출, ‘민관 한뜻’으로 지평 넓힌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여수서 ‘녹색산업 협의회’ 확대 협약식 개최
- 에너지·플랜트 공공기관 및 삼성중공업·한화솔루션 등 26개 기관 신규 합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0일 오전 여수 소노캄(여수 수정동 소재)에서 ‘녹색산업 협의회(얼라이언스) 확대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에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외진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급증하는 전 세계 녹색 신산업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74개 기관이 참여하던 녹색산업 협의회가 환경 중심이었다면 이번 협의회는 에너지와 플랜트, 전력계통 등 녹색 신산업 전반으로 대폭 확장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녹색산업 국가대표팀’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새롭게 합류하는 공공기관 14개와 민간기업 12개사 대표들이 참석하여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참여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해외 수행 역량이 검증된 삼성중공업, 한화솔루션, 에이치디(HD)현대일렉트릭, 엘에스(LS)일렉트릭, 엘엑스(LX)인터내셔널, 에코프로에이치엔(HN)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동반진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력 있는 중견·중소기업들도 참여한다.

새롭게 정비된 녹색산업 협의체는 앞으로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해외 사업 발굴부터 협력망 구축, 수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략적 수주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 서로 다른 산업군이 결합된 ‘묶음(패키지)형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성환 장관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인허가 지연, 자금 조달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수주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김 장관은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 간 협력(G2G)을 강화하여 지정학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향후 예상되는 중동지역 복구사업 수요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의 수주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보증 확대 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민관 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2023년 출범 이후 총 22개국에 수주지원단을 45회에 걸쳐 파견해 왔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2023년 20.5조 원, 2024년 22.7조 원, 2025년 21.4조 원의 성과를 거두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기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여수 엑스포장과 오동도를 잇는 방파제 길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듯, 녹색산업 협의체가 우리 기업과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가장 단단한 가교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하나가 되어 세계 녹색 전환의 흐름을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확대 협약식 개요.
 2. 신규 참여 기관 및 기업 현황.
 3.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 문안.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명규 (044-201-7560)
	녹색산업 해외진출TF	담당자	사무관	이선이 (044-201-7563)



□ **행사 개요**

- (행사명)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확대 협약식 및 간담회
- (일시) '26.4.20.(월), 10:40~11:45
- (장소) 전남 여수 소노캠 릴리홀
- (참여대상) 장관,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기업 등 30여명
- (주요내용)
 -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추가 확대기관·기업 대상 협약식
 - 해외진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향 설명 및 기업 의견 수렴 간담회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0:40~10:43('3)	• 개회 및 주요내빈 소개	사회자
10:43~10:46('3)	• 개회사	장관
10:46~10:50('4)	• 해외진출 성과 및 진출전략 설명	영상
10:50~11:02('12)	• 기념 촬영 및 협약식	사회자 협약서 낭독
11:02~11:40('38)	• 간담회(애로 및 건의)	
11:40~11:45('5)	• 마무리 말씀	장관

구분		기관명
1	공공·유관기관 (14)	한국전력공사
2		한국지역난방공사
3		한국전력기술(주)
4		한전KPS(주)
5		한전KDN(주)
6		한국에너지공단
7		전력거래소
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0		한국환경보전원
11		한국상하수도협회
12		한국물산업협의회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4		플랜트산업협회
15	기업 (12)	(주)삼성중공업
16		(주)한화솔루션(규셀부문)
17		LS일렉트릭(주)
18		HD현대일렉트릭(주)
19		(주)LX인터내셔널
20		(주)에코프로 HN
21		BHI(주)
22		서창전기통신(주)
23		와이피피(주)
24		(주)에이투엠
25		(주)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26		(주)부강테크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 참여기업·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은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방향) 협약당사자는 녹색수출을 통한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녹색산업 지원단, 해외 진출사업 발굴, 민관협업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역할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 녹색산업 지원단 총괄, 녹색산업 지원 전략 수립 및 이행 수단 발굴, 정부 간 협력 등
2. 협약 참여기업·기관 : 녹색산업 지원전략 이행, 녹색산업 발굴 및 투자, 금융 지원 방안 발굴 협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주 등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녹색산업 지원 계획 조사 및 지원 사업 발굴, 녹색산업 발굴 및 투자 지원, 홍보 등

제3조(협의체 운영) 협약당사자는 제2조의 협력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 수시 전략회의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상호협조)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사전에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협약당사자는 협약이행·교류·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부 시책, 경영정보 및 관련 기술, 입찰정보와 같은 지적재산 등을 본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여타 협약 참여기업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여 5년간 유효하며, 이후 기후에너지부 자체 심의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통보할 수 있다.

이 협약서는 당사자 간에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4월 20일

(사인)

(사인)

(사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협약기업 대표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